

떠나는 이들에게 | 졸업생에 전하는 응원과 격려

# 떠나는 이들에게, 내 삶의 부자 되세요!

2002년 새해 덕담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라고 한다. 모 카드 회사의 광고 문구였던 이 인사말은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제치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새해 덕담이 됐다. 캠퍼스를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 덕담으로 “삶의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다.

삶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출세, 명예와 같이 외적 성취를, 다른 하나는 행복, 성장과 같은 내적 성취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자를 ‘생활부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의미부자’라고 부르고 싶다. 생활부자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

면, 의미부자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두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삶의 풍부한 의미부자가 되었으면 한다.

내 삶의 의미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 경험, 마음이라는 나만의 인생 자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노력하면 어떨까 한다.

가치 자산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삶의 가치 자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지금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가

지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 내가 성취한 결과를 사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한다.

경험 자산 역시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식을 넘어서 실제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현장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 자산은 여러분들이 향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이를 성취해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졸업 후 여러분들이 활동할 사회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과 이에 기반하는 ‘지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같은 경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아닌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마음 자산 또한 여러분의 삶의 행

복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격차도 확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양성과 격차가 커지는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마음 자산은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나아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여러분들이 포용의 마음 자산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내 삶의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캠퍼스를 떠나는 이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삶의 부자는 인생

자산의 중심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다시 생각해본다.

아울러 진심으로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종호  
교육학과 교수

# 성공을 새기고 떠나는 당신들을 바라봅니다

본교를 다니며 짧게는 2년, 길게는 십여 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캠퍼스 생활을 보내셨나요? 고요한 도서관에서 열심히 끄적거리던 노트 한 페이지, 달빛 아래 좋아하던 사람과 마셨던 술 한 잔, 현미경으로 이상하게 찍었던 신경 세포 사진 한 장... 동계들과 함께 설레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간이 됐네요.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 나갈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물과는 거리가 멀던 제가 ‘뇌’라는 것을 연구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연구가 정말 재미있는 것인지, 연구하는 나 자신에 심취한 것인지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이 흘렀네요. 신기하게도 많은 후배가 1년 반이 지나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보 같은 제가 이 공간은 어울리지 않는 곳일까요?”

선배들에게 실험을 열심히 배우고 나면 나만의 실험을 구상해 매달 발표했

습니다. 분명 이제는 다 안다는 자신감 아래 발표를 마치면 돌아오는 것은 교수님과 선배들의 부정적 질문뿐. 악에 받쳐 선배에게 질문하려 하면 선배의 발표는 너무도 완벽해 보였고, 노벨상 수상을 눈앞에 둔 것 같았던 내가 언제나 하찮고 볼품없이 보였습니다. 선배들만 봐도 나보다 3~4배는 오래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말이죠.

한번은 교수님께 잔뜩 혼나고 거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를 찾아 진학한 대학원이었는데 어느새 실적이란 목매는 내가 거울 속에 보였던 것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남에게 잘 보이는 것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아! 내 생각이 처음과 달라져서 대학원이 어울리지 않아 보였구나.’

엑스 재팬(X-Japan)의 《Art of Lif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노래입니다. 화려한 오케스

트라 선율에 가려진 어두운 가사와 분위기. 그 속에서 세상 모두가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메마르지 않고 피어있는 장미 한 송이.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요시키(Yoshiki)가 계속되는 성공 중 부상으로 드림을 손에서 놓아야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스케치한 이 곡은 삶을 성찰하던 제게 너무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끝없는 물음과 진리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한계에 부딪혀 벽을 쌓지만 다시 부수고 나아가는, 뭉툭해져도 화사하게 피어오른 장미 한 송이야말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작년에 다녀온 학회의 폐회식, 학회장님께서 식을 진행하며 전달한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자아 성찰의 공간인 대학에서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언제 용기를 얻어 한 발자국 나아가겠나요? 대학이야말로 기계도 망가뜨려 보고 실험도 실패해보는 실패

의 장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대가(大家)의 길로 자신을 이끌고 있지 않을까요?” 후배들에게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학은 너의 성공만을 바라는 곳이 아니고, 성장통 없는 성공은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서울대학교라는 이곳에서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신 분도, 모조리 미끄러지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제게 실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겠지요. 성공한 인생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남이 정의한 성공이 아닌 나만의 길.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 순간을 언제나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누구보다 자아 성장을 위해 노력한 당신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선후배 여

러분께 부족하지만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온 당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승현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석사과정

www.kftec.com

**사람을 위한 기업, 미래를 향한 기술**

글로벌 자동차 친환경부품 전문기업 - **코리아에프티**  
**KFTC(Korea Fuel-Tech Corporation)**  
 Eco-friendly Korea Fuel-Tech Corporation  
 코리아에프티의 친환경적, 친인간적 기술력은 우리 삶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23  
 TEL : 070-7093-1500 FAX : 031-656-4451

**코리아에프티주식회사**